

여수 경도 연륙교 개설 지연되나

여수시 분담금 73억원 시의회, 승인 않고 삭감 권오봉 시장, 예산반영 촉구

여수 경도해안관광단지 연륙교 개설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는 최근 경도 연륙교 건설비 1195억원 가운데 2022년 여수시 분담금 73억원을 승인하지 않고 삭감했다.

여수시는 시가 부담해야 할 239억원 중 2022년도 분담금 73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상임위에 이어 지난 9일 예결위에서도

표결 후 전액 삭감됐다.

경도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서 총 사업비 1195억원을 들여 1.35km에 해당하는 연륙교를 2024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이다.

최초 계획은 신월동-경도-돌산 간 교통량 분산 처리를 목적으로 1986년에 수립된 도시계획도로로 36년 된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경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총 사업비 1195억원 중 국가가 40%인 478억원을 부담하고, 전남도, 여수시, 미래에셋이 20%인 239억원씩을 부담한다.

하지만 시가 부담해야 할 239억원 중 2022년도 부담금 73억원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삭감됐다.

시비 부담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전남도와 국비

가 차레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수시의회 예산 심의는 첫 관문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권오봉 여수시장은 36년 된 숙원 사업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회가 이번 회기에 반드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시장은 지난 10일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업무 보고회에서 경도 진입도로 예산 삭감과 관련해 “여수의 미래와 시민편익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두고두고 우리 시민들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시의회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시장은 이어 “경도 연륙교가 앞으로 경도와 돌산 간 교량으로 연결이 되면 제3 돌산대교 사업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면서 “돌산의 관광 상황 등으로 볼 때 지금 시작해도 이르지 않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지난달 20일 도화면 구암위판장에서 위판을 시작한 고흥 생김이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했다.

고흥 햇김 본격 수확...올 11만5천t 865억 목표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고흥산 햇김 수확이 본격 시작됐다.

고흥군은 올해 1만293ha의 면적에 총 10만 2930톤을 시설해 생산량 11만5000t, 865억원의 매출을 올겨올에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1월20일 도화면 구암위판장에서 생김 위판을 시작했으며 위판 가격은 1포대(120kg) 당 최저 10만9000원에서 최고 11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까지 5500t에 51억원의 물김 위판으로 순조로운 생산량을 보이고 있어 지난해 소득과 비슷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예년보다 높은 수온으로 인해 김 양식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됐으나, 다행히 11월부터 수온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됐고 영양염 수치도 점차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김 냉동망 지원, 우량 김종자 보급시설 등 김양식 관련 6종 사업에 37억7700만원을 지원했다”며 “내년에도 6종 사업에 총 63억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흥김 생산과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철저한 병해 예방, 김 양식시설 관리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순천시 '농담토론회' 5개 농정과제 발굴

2023년 시책 건의 순천형 농정 소통 모델

순천시가 최근 호남호국기념관에서 순천시 농업에 대한 진솔한 담화인 '농담(農談)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희망농정소통위원회 주관으로 소통위원, 선도농업인, 청년농업인,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 70명이 참석했다.

농산물 생산·기술 분야, 농식품 가공·유통 분야, 농촌 활력·복지 분야로 나눠 지금까지 순천시 농정의 아쉬운 점을 돌아보고 위드 코로나, 스마트 농업 등 미래 농업 트렌드를 대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전자 투표 방식을 도입해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농업직 공무원 전문성 확보 ▲소규모 농작인 최저 수입 보장 지원 ▲지역 농산품 가공·유통 체계 발전 ▲농업보조금 체계적 관리 ▲농촌 인력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총 5개 과제가 선정됐다.

선정된 주제는 앞으로 1년간 순천시 희망농정소통위원회에서 토론회, 벤치마킹, 명사 초청 강의 등 속의 과정을 거쳐 2023년 농정시책으로 건의하



순천시가 최근 호남호국기념관에서 '농담 토론회'를 열고 지역 농업인 등 농업 관계자들과 순천시 농업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순천시 제공>

게 된다.

토론회 마지막 시간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카드섹션과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하고 살고 싶은 농촌, 행복한 농업을 위해 다양한 농정시책을 순천시 희망농정소통위원회와 함께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세관, 여수광양항만공사에 '금속탐지기' 제공

여수세관이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문형 금속 탐지기' 2대를 무상 제공했다.

여수세관에 따르면 문형 금속 탐지기는 국제크루즈선의 여수 입항과 출항 시 탑승객들에 대한 보안 검색용으로 필요한 장비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대에 550만원 정도의 장비를 무상으로 받아 여수엑스포여객선터미널에 배치해 국제크루즈를 이용하는 여행객의 보안 검색 시 사용할 계획이다.

이소면 여수 세관장은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중단됐던 국제크루즈선 여수항 입항에 대비하고, 여수항을 통한 총기류 등 테러 물품 반·출입 방지 및 관세국경 감시강화를 위해 사용 연한이 지났지만 활용이 가능한 문형 금속탐지기 2대를 선별 점검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 양여한 문형 금속탐지기가 여수엑스포



문형 금속탐지기 전달식이 지난 10일 여수엑스포 여객선터미널에서 진행됐다.

포여객선터미널을 이용하는 국제크루즈선 여행객들에 대한 보안 검색에 잘 활용돼 국민보호 및 공공안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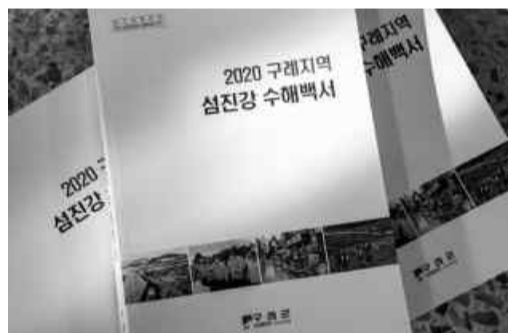
구례군 '섬진강 수해백서' 출간

구례군이 2020년 8월 발생했던 사상 초유의 섬진강 홍수피해와 극복과정을 담은 '2020 구례지역 섬진강 수해백서'를 책자로 출간했다.

당시 긴 장마와 예상치 못했던 섬진강댐의 최대치 방류로 섬진강과 하천이 범람하면서 이재민 1149명, 재산피해 1807억원이 발생했다.

복구과정에는 2만6400명의 인력과 2618대의 장비가 투입됐고, 전국 각지에서 보내 온 수재의연품은 46만5000여 점에 달한 바 있다.

백서발간 사업에는 구례군과 구례군의회, 13개 유관기관, 4개 수재민단체가 참여했고, 분야별 피해상황과 복구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총 751페이지에 걸쳐 기록했다. 구례군은 정부기관, 수해 관련 기관 및 단체, 피해마를 등에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수해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같은 재난을 두 번 다시 겪지 않도록 교훈을 남기고자 백서를 출간했다”며 “백서를 통해 수재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복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광양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공모 선정

국비 포함 사업비 200억 확보

광양시가 산림청 공모 '2022년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광양시는 국비 10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00억원을 확보했다.

2019년부터 전국 17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해 추진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이번 공모에서 신규로 전국 8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전남에

서는 광양시가 유일하다.

시는 민선 7기 역점시책인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 환경도시' 조성이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2030 탄소중립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2022년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이후 3년간 연차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튼튼한 지킴이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